

주식전략

과매도를 말하는 두 개의 지표: 밸류에이션과 수출

분석의 기본 가정

- 반도체를 제외해도 KOSPI 밸류에이션이 하단에 근접한 현재 추가 급락은 제한적
- 수출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급락한 것은 투자 심리 냉각 때문 → 투자 심리 환기 관점에서 이번 주 미국 반도체 기업(AMD, SNDK, WDC) 실적 발표 주목 필요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반도체를 제외해도 KOSPI 밸류에이션은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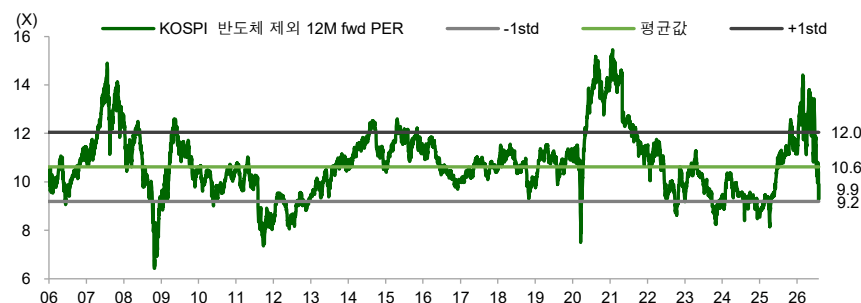
코스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지표가 빠르게 하락했으나 이는 반도체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KOSPI의 12개월 선행 PER은 9.9배다. 이는 10년 평균인 10.6배를 하회하며, 통계적 저평가 기준선인 -1표준편차(9.2배)에 바짝 다가선 수준이다. 반도체를 제외해도 PER은 평균 아래, PBR은 -1표준편차를 하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하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이익 개선이 확인될 경우 지수의 재평가 여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7월 수출이 말해주는 것: 펀더멘탈 대비 과도했던 투자심리 냉각

7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2.8% 증가한 988.9억 달러로, 상반기 마감 직후인 7월임에도 전기간 중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역대 1위는 2026년 7월). 반도체 수출은 410.1억 달러(+178.8%YoY)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수출도 +26%YoY 증가했다. 또한, 전체 수출·반도체·반도체 외 수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뚜렷한 우상향 흐름을 그리는 반면, KOSPI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이와 역행하며 급락했다. 기업이익의 선행지표인 수출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면에서 주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조정받은 것으로 최근의 지수 낙폭은 펀더멘탈이 정당화하는 수준을 과도하게 이탈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저평가와 이익 개선이라는 상방 논리가 유효하다고 해서 하방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국면일수록 강세 전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경계 요인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1)내부 수급에 누적된 레버리지 활용 물량(신용융자, 미수 등), 2)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특히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3)통상·지정학 리스크를 주목한다.

도표 1. 반도체 제외 KOSPI 12개월 선행 PER 추이: 현재 9.9배로 -1표준편차(9.2배) 부근



주) 2026.07.31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를 제외해도 KOSPI 밸류에이션은 하단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반도체 쏠림

코스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지표가 빠르게 하락했으나 반도체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로 반도체의 선행 이익 기여도가 급격히 커지면 분모가 팽창하면서 지수 전체 PER(=시가총액/EPS)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제외한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싼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반도체를 건너뛴을 때 밸류에이션이 평균 수준으로 복귀한다면 ‘착시론’이 맞지만, 여전히 밴드 하단에 머문다면 저평가는 시장 전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외 PER 9.9배
:10년평균(10.6배) 하회,
-1표준편차(9.2배) 근접

결론부터 말하면 후자다. 반도체를 제외한 KOSPI의 12개월 선행 PER은 9.9배로 이는 최근 10년 평균인 10.6배를 하회하며 통계적 저평가 기준선인 -1표준편차(9.2배)에 바짝 다가선 수준이다. 상단(+1표준편차)인 12.0배와의 괴리를 감안하면, 반도체를 배제하더라도 현재 지수는 밸류에이션 밴드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과거 이 지표가 -1표준편차 부근까지 내려갔던 국면들은 대체로 경기·이익 사이클의 저점 인근이었고, 이후 밴드 중심선(최근 10년 평균)으로의 되돌림이 나타났다. 즉 현재 지수의 저평가는 반도체 한 종목군이 만들어낸 통계적 왜곡이 아니라, 반도체 외 대다수 업종에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반도체 제외 PBR 1.0배
: 10년 평균(1.3배) 및
-1표준편차(1.1배)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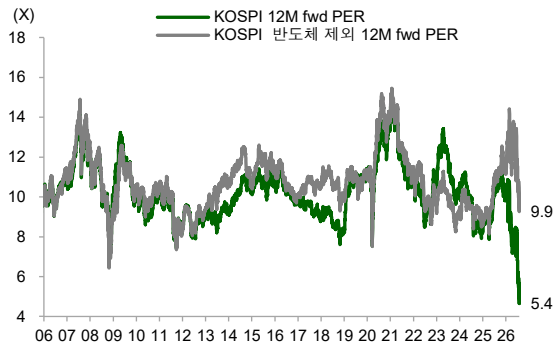
자산가치 대비로 보면 저평가는 한층 더 뚜렷하다. 반도체 제외 KOSPI의 12개월 선행 PBR은 1.0배로 10년 평균(1.3배)는 물론 -1표준편차(1.1배)까지 소폭 하회한다. PBR 1.0배는 시장이 상장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겨우 인정하는 수준으로, 그 이하 구간은 이익의 훼손이나 자본의 잠식을 선반영할 때에나 나타난다. 실제로 이 영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극단적 공포가 지배했던 국면에서 형성됐던 저평가대와 겹친다. 이익 지표(PER)와 자산 지표(PBR)가 동시에 밴드 하단을 가리킨다는 것은, 현재 주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최근 수년간 진행된 주주환원 확대(배당 성향 상승, 자사주 매입·소각 증가)와 지배구조 개선 흐름은 PBR의 구조적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요컨대 현재의 반도체 제외 PBR 1.0배는 단순한 저평가를 넘어, 하방을 지지하는 제도적·정책적 배경까지 갖춘 구간으로 볼 수 있다.

KOSPI의 저평가는
반도체만의 착시가 아님'

결론적으로 KOSPI의 저평가는 반도체 착시가 아니다. 반도체를 제외해도 PER은 평균 아래, PBR은 -1표준편차 아래에 있어 밸류에이션 하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향후 이익 개선이 확인될 경우 지수의 재평가 여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반도체 외 업종으로 대응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시사점이다. 저평가는 그 자체로 상승의 방아쇠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을수록 추가 하락의 여지도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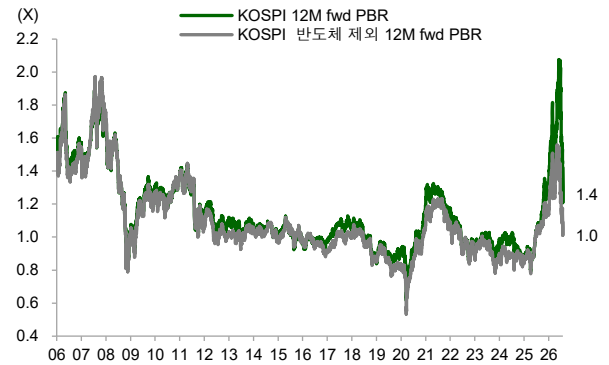
도표 2. 전체 KOSPI 및 반도체 제외 KOSPI 12개월 선행 PER 추이 비교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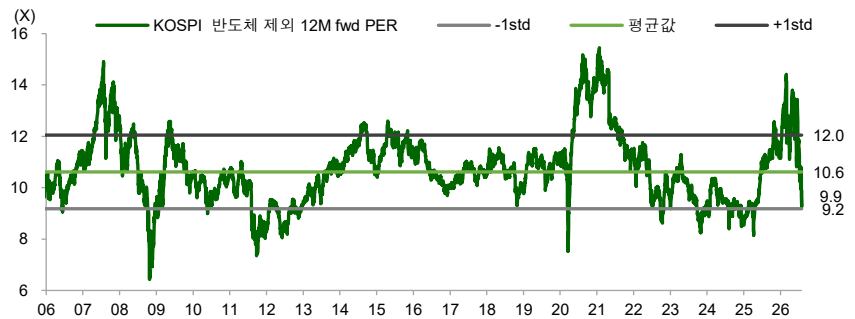
도표 3. 전체 KOSPI 및 반도체 제외 KOSPI 12개월 선행 PBR 추이 비교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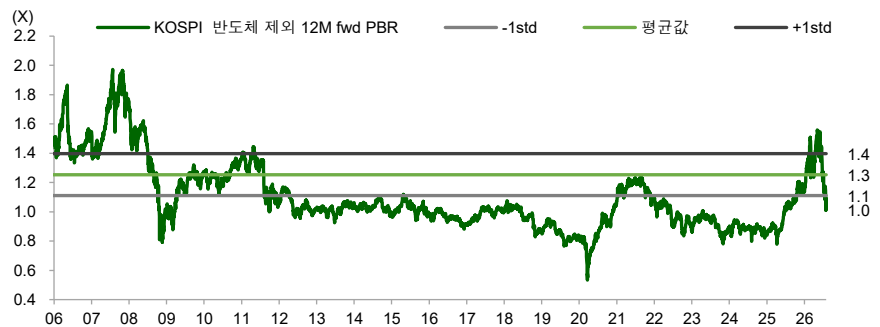
도표 4. 반도체 제외 KOSPI 12개월 선행 PER 추이: 현재 9.9배로 -1표준편차(9.2배) 부근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반도체 제외 KOSPI 12개월 선행 PBR 추이: 현재 1.0배로 -1표준편차(1.1배) 소폭 하회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7월 수출이 말해주는 것: 펀더멘탈 대비 과도했던 투자심리 냉각

7월 수출 +62.8%YoY
: 역대 2위 증가폭

7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2.8% 증가한 988.9억 달러로, 상반기 마감 직후인 7월임에도 전기간 중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역대 1위는 2026년 7월). 통상 7월은 반기 마감 효과가 사라져 계절적으로 부담이 있는 달임을 고려하면 실적의 무게는 더 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69.6%YoY(41.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상회해 물량이 아닌 추세의 개선임을 확인시켜 준다. 무역수지는 303.2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은 한국 상장기업 이익의 가장 강력한 선행지표이며 그 동력이 뚜렷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출입동향의 핵심이다.

‘반도체만의 잔치’가 아님,
: 반도체 외 품목
+26%YoY

반도체 수출은 410.1억 달러(+178.8%YoY)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개선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수출도 +26%YoY 증가했고, 20대 주력 품목 중 19개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확인한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저평가 구간’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품목별로 뜯어보면 개선의 저변이 넓다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

- IT: 컴퓨터 +404.0%YoY(기업용 SSD·MCP 주도), 무선통신기기 +51.0%YoY(프리미엄 신제품 호조), 디스플레이 +2.4%YoY 등 전 품목 플러스
 - 모빌리티: 자동차 +7.0%YoY(친환경차 판매 호조), 선박 +46.9%YoY(LNG선·탱커 중심, 6개월 연속 플러스)
 - 에너지·화학: 석유제품 +34.1%YoY, 석유화학 +10.3%YoY (유가·수출단가 상승 반영)
 - 소재·기계: 일반기계 +5.9%YoY, 전기기기 +13.9%YoY(역대 7월 최대), 철강 +4.4%YoY
 - 소비재: 바이오헬스 +30.4%YoY, 화장품 +37.8%YoY, 생활용품 +14.2%YoY
- 으로 다수 품목이 역대 7월 최대 실적 경신

특정 업종의 일회성 급등이 아니라 IT, 모빌리티, 에너지·화학, 소재·기계, 소비재에 걸친 ‘고른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익 사이클의 방향성은 상방을 가리킨다.

지역 다변화,
특정 시장 의존의 완화

지역별로도 온기가 확산됐다. 대중국 +96.2%YoY(2개월 연속 200억 달러 초과), 대미국 +68.7%YoY(AI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품목 호조), 아세안 +73.7%YoY(전기간 역대 최대), 대EU +55.7%YoY(역대 최대 경신) 등 9대 주요 지역 중 8곳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정 시장에 편중되지 않은 광범위한 개선은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수출 개선의 ‘질’ 역시 양호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증시와 펀더멘탈의 괴리 —
낙폭 과대

또한, 전체 수출·반도체·반도체 외 수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뚜렷한 우상향 흐름을 그리는 반면, KOSPI의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은 이와 역행하며 급락했다. 기업이익의 선행지표인 수출이 개선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조정 받은 것으로, 최근의 지수 낙폭은 펀더멘탈이 정당화하는 수준을 과도하게 이탈했다고 판단한다. 통상 수출 증가율과 지수 등락률은 중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 왔으며, 현재와 같은 역방향 괴리는 대개 시간이 지나며 되돌려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번 낙폭의 상당 부분은 이익이 아닌 심리(벨류에이션 축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상방 논리와 별개로
점검해야 할 하방 취약성

다만 저평가와 이익 개선이라는 상방 논리가 유효하다고 해서 하방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국면일수록 강세 전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경계 요인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크게 1) 내부 수급에 누적된 레버리지 활용 물량(신용융자, 미수 등) 2)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특히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3)통상·지정학 리스크를 주목한다.

상승장 과정에서
늘어난 신용융자잔고와
미수금

첫째, 내부 수급에 쌓인 레버리지 활용 물량이다.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융자잔고는 고점(38조원, 5/29) 대비 축소됐으나 여전히 32조원(7/30)에 달해 절대 규모 면에서는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7/30 기준 1.7조원까지 늘며 동반 증가하는 흐름이다. 레버리지 물량은 상승 국면에서는 지수를 추가로 밀어 올리는 순기능을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성격이 정반대로 돌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낙폭이 커지면 담보 부족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촉발되고, 이는 다시 낙폭을 증폭시키는 하방 가속 장치로 작동한다. 즉 누적된 레버리지는 조정 국면에서 되돌림의 폭과 속도를 키우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7/30 하루에만 1,000억원대의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됐으며 이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선호를 위축

둘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매크로의 변동성, 그중에서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증시가 추세적으로 꺾인 계기는 금리 레벨보다 통화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었다. FOMC를 전후로 연준 의장의 소통 방식이나 매파적 톤에 시장 참여자들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할 경우 금리 기대가 재차 흔들리며 위험선호가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유가 반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 ‘유가 상승 → 인플레 재점화 → 금리 상단 재상승’의 연결고리가 다시 가동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고점 부근에서 추가로 상승할 경우 할인을 부담이 커지며 벨류에이션(특히 고PER 성장주)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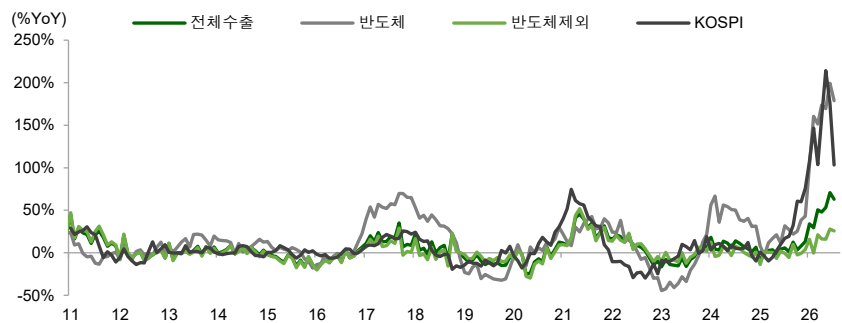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점검해야 할 대외 리스크

셋째, 통상·지정학 리스크다. 다만 이 둘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지정학 리스크는 당분간 소강 국면으로 판단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인 만큼,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중동발 긴장 고조를 미국 스스로도 더는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관세 보다 정확히는 ‘자국우선주의 강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이어질 수 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에 소구하는 카드로 부각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 이슈는 이미 2025년에 상당부분 반영한 재료인만큼 추가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뚜렷한 실체가 있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현 미 행정부의 특성상 ‘불확실성’ 그 자체를 상수로 열어두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8월 전략: 방향성은 유지,
속도 조절과
리스크 관리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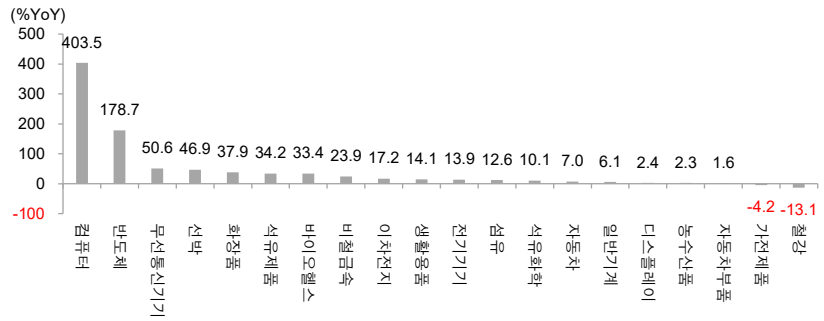
종합하자면 1)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하단에 위치한 밸류에이션, 2)건조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하면 현재 증시는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향후 내부 레버리지, 대외 통화정책, 통상·지정학이라는 세 갈래의 변수는 언제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큰 방향성(비중 확대)은 유지하되 상승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수급 지표를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변동성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방향을 맞히는 것만큼이나 흔들림의 크기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중심의 IT뿐 아니라, 수출 개선이 확인되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소재, 기계, 소비재 등으로 넓히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 주주환원 확대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금융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도표 6. 수출 품목 및 KOSPI 전년동기 대비 변화를 추이: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증시 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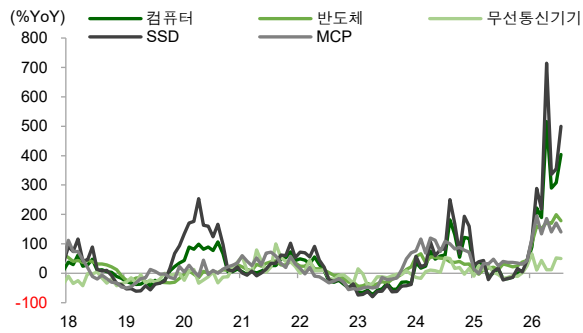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7월 20대 주요 수출 품목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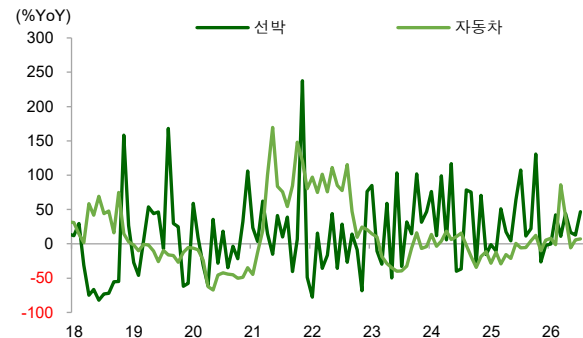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IT 주요 품목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변화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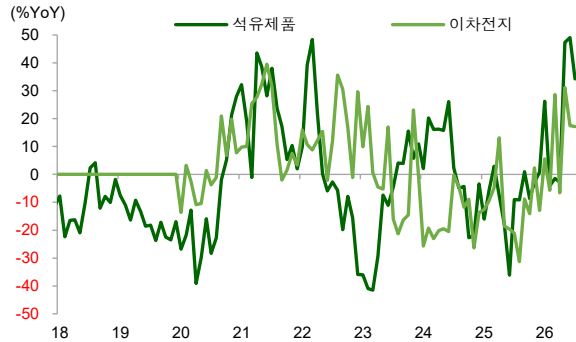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모빌리티 주요 품목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변화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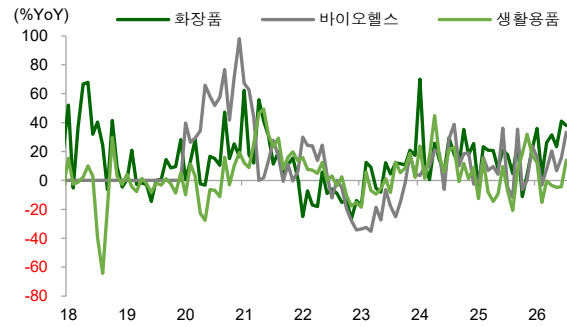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에너지·화학 주요 품목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변화를 추이



자료 :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소비자 주요 품목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변화를 추이



자료 :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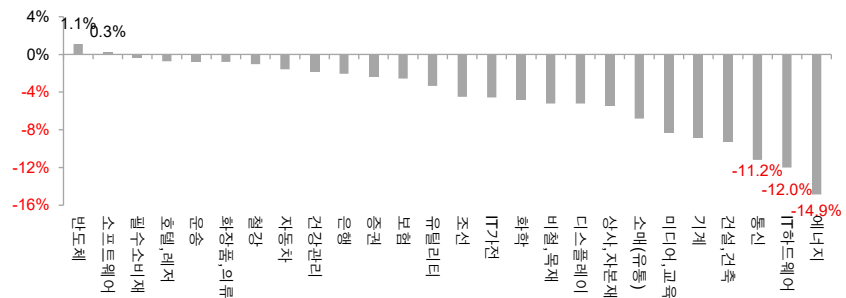
7/31 KOSPI 종가
6,595pt,
주간 수익률 -1.4%

지난주 KOSPI는 6,595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주 중반에는 증가 기준 5,500pt대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위축되기도 했으나, 주 후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통해 AI 수익성의 개선과 빅테크의 CAPEX 확대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에 금요일 KOSPI는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일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주중 낙폭의 상당 부분을 되돌렸다.

주가지수 부진에도
KOSPI 전체
이익 모멘텀은 견조

한편 주가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KOSPI 전체 이익 모멘텀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IT하드웨어, 반도체, IT가전의 기술 업종이 중심이나 화학, 운송, 에너지 등의 경기 민감 업종과 조선, 기계, 상사/자본재, 건설/건축과 같은 산업재 업종의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가파른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개별 기업의 견조한 이익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 12.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7.31)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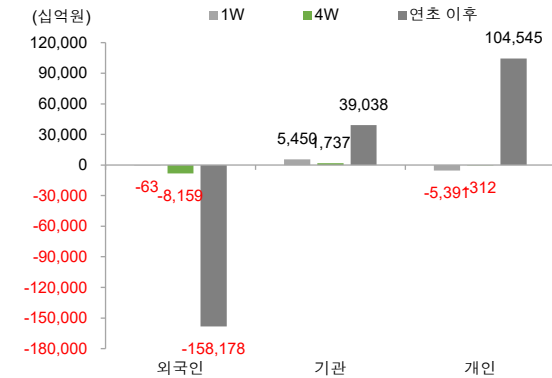
도표 13.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7.31)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7.03	07.10	07.16	07.24	07.31	07.03	07.10	07.16	07.24	07.31
KOSPI	-3.8	-7.6	-8.8	-1.9	-1.4	10.9	11.2	10.6	7.2	7.2
KOSDAQ	2.0	-3.6	-5.4	-5.5	-3.8	3.6	3.8	4.1	3.5	3.2
에너지	-3.2	-0.5	-3.0	9.4	-14.9	10.1	10.2	11.9	7.1	5.4
화학	1.6	-4.2	-3.2	-0.2	-4.8	-1.5	1.4	3.4	6.2	12.9
비철/소재	5.9	-5.2	-1.9	3.6	-5.2	3.8	4.7	2.8	2.2	1.5
철강	4.9	-2.2	-0.8	1.1	-1.0	0.7	-2.1	-3.2	-2.1	-0.3
건설/건축	9.9	-3.8	-8.0	6.7	-9.3	1.3	0.3	-2.1	-0.2	2.7
기계	7.6	-9.0	-7.9	2.0	-8.9	3.2	3.1	2.6	3.2	4.6
조선	4.8	-10.3	1.0	3.7	-4.5	2.9	2.3	2.9	1.9	5.7
상사/자본재	3.4	-9.6	-6.1	1.5	-5.5	1.2	1.7	1.4	1.5	2.8
운송	7.0	-0.8	-2.7	3.1	-0.8	5.8	7.1	9.7	9.7	11.6
자동차	5.1	-3.8	-3.2	-5.7	-1.6	0.7	1.4	1.1	1.4	1.5
화장품/의류	11.0	-1.8	2.6	-3.6	-0.8	2.2	2.8	3.0	3.4	4.7
호텔/레저	5.5	-0.7	-7.7	-0.4	-0.7	1.1	1.0	1.6	-0.9	-0.9
미디어/교육	10.1	2.3	-4.9	1.4	-8.3	0.9	2.6	2.5	2.3	1.5
유통	0.5	-4.2	-4.4	-7.3	-6.8	5.3	3.1	3.7	1.4	0.4
음식료/담배	5.4	0.2	-0.7	2.3	-0.4	0.8	0.7	0.8	1.2	1.1
헬스케어	5.6	-6.2	-3.4	-0.9	-1.8	1.4	1.7	1.9	1.2	1.7
은행	13.6	3.4	0.7	-3.5	-2.0	1.1	1.4	1.7	2.9	2.0
증권	12.8	-1.7	-3.0	-4.4	-2.4	0.2	3.6	4.2	4.1	3.3
보험	-4.6	-4.2	1.6	-3.9	-2.6	4.4	6.2	6.1	6.6	7.9
소프트웨어	4.6	-1.5	-2.4	3.6	0.3	0.1	-0.2	0.1	0.3	-0.4
IT하드웨어	-0.6	-16.1	-14.7	-0.3	-12.0	8.0	10.2	10.6	10.5	17.1
반도체	-8.8	-8.9	-12.6	-4.0	1.1	13.4	13.5	12.7	8.2	8.1
IT가전	1.6	-6.5	-2.0	-3.0	-4.6	0.1	8.6	7.5	10.1	11.5
디스플레이	0.5	-0.4	-4.5	-4.3	-5.2	-5.7	-6.3	-2.2	-10.5	-15.5
통신	-1.5	2.6	-0.9	7.1	-11.2	0.6	1.0	1.5	2.4	2.4
유틸리티	3.8	-3.9	-5.3	5.1	-3.3	0.6	1.0	1.5	2.4	2.4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KOSPI는 순매도했으나 주 후반 순매수세를 확대했고 KOSDAQ은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IT하드웨어, 증권, 기계, 자동차, 화장품/의류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되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모습이였다. 기관은 KOSPI와 KOSDAQ을 모두 순매수 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화장품/의류, 은행을 순매수했으며 소매(유통), 에너지, IT하드웨어, 증권, 기계를 순매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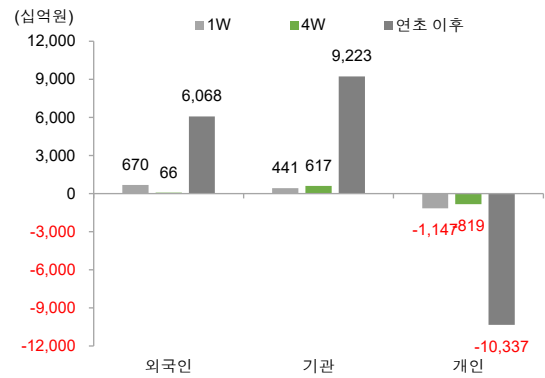
도표 14.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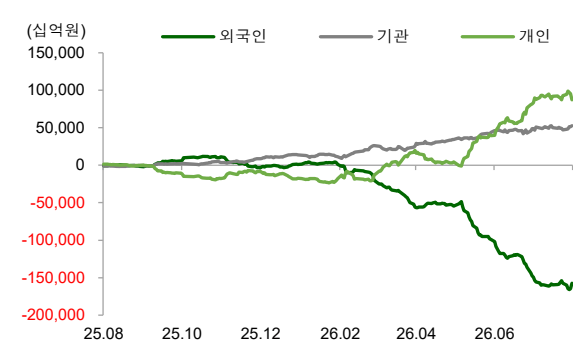
도표 15.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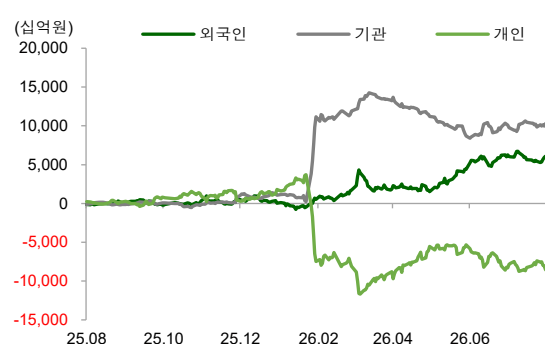
도표 16.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IT하드웨어	267.0
	증권	230.5
	기계	202.9
	자동차	186.5
	화장품,의류	74.0
순매도 TOP5	반도체	-367.6
	은행	-186.2
	통신	-157.6
	소프트웨어	-114.4
	에너지	-86.6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4,217.6
	건강관리	596.6
	소프트웨어	272.8
	화장품,의류	239.9
	은행	228.6
순매도 TOP5	기계	-134.8
	증권	-105.4
	IT하드웨어	-70.5
	에너지	-42.0
	소매(유통)	-37.2

주) 2026.07.31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8/3 미 7월 ISM 제조업 PMI PLTR S-Oil	8/4 미 6월 JOLTS 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 AMD, ANET, SPCX, CAT, MRTK, AMGN, PFE, GILD, MCD 삼성증권,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8/5 미 재무부 3분기 QRA 미 7월 ADP 고용변화 미 7월 ISM 서비스업 PMI WDC, SNDK, UBER, APP, LLY, DIS, DASH DB하이텍, 롯데칠성, 현대백화점, 에이퍼알	8/6 COP, HEWM, DDOG, CEG, ABNB 카카오, CJ ENM, 휴젤, LG유플러스, 케이티엔지	8/7 미 7월 고용보고서 미 7월 실업률 VST 네이버, CJ CGV,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파마리서치
8/10 RKLB SK바이오사이언스	8/11 LITE, CRWW, SMCI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펄어비스, 신세계	8/12 미 7월 CPI 한 7월 실업률 NBIS 한국콜마, 더블유게임즈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8/13 한 옵션 만기일 미 7월 PPI AMT, TPR LG, 달바글로벌,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해보험	8/14 미 7월 소매판매 메리츠금융지주, 현대해상, 코리안리
8/17	8/18 미 7월 산업생산 HD	8/19 TJX, LOW, TGT, EL	8/20 7월 FOMC 의사록 공개 MRVL, WMT, DE, DLTR	8/21 미 옵션 만기일
8/24 PANW	8/25 미 7월 CB 소비자신뢰지수 INTU	8/26 미 7월 PCE 미 2분기 GDP(잠정치) NVDA	8/27 잭슨홀미팅(~29일) 한국은행 금통위 ULTA, LULU, DG	8/28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미 8월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미 8월 미시간 기대인플레이션
8/3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한 7월 산업생산 한 7월 소매판매 PDD	9/1 한 8월 수출입동향	9/2 CRWD, CRM	9/3 AVGO, DELL	9/4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